

기해사행(1719) 속 전례의 활용

—對馬 宗家文書を 중심으로—*

이재훈 _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강사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전례가 불분명한 경우
- III. 통신사 측에서 전례와 다름을 말한 경우
- IV. 통신사 측에서 전례를 따를 것을 거절한 경우
- V. 나가며

국문초록

통신사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강정(講定)을 통해 세세한 부분을 해결해 두는데, 강정으로 정하지 않은 수많은 사안들에 관해서는 대개의 경우, 이전 통신사행에서 어떻게 행해져 왔는가를 그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전례를 지킬 수 없는 경우, 혹은 전례를 일방적으로 한 쪽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쓰시마가 통신사행을 수행할 때 전례를 지키지 못하거나 전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다. 만약 전례가 없는 경우라면 이전에 통신사행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확인하거나 정황에 맞춰 판단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전례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통신사행을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3919)

원활하게 진행하는 임무를 완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상황에 대응하였는데, 그러면서도 막부와 쓰시마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로는 이와 같은 두 개의 상충된 성질이 부딪히는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

주제어

기해사행, 봉행매일기, 전례, 대마도종가문서

.....

I . 들어가며

통신사(通信使)는 조선과 일본의 외교의 선봉에 서있었기에, 통신사행 도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쉽사리 개인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강정사(講定使, 講定譯官)를 보내, 통신사가 일본에 갔을 때의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고 서로 큼지막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를 마쳐두었다. 다만, 모든 사항을 이곳에서 정할 수는 없기에 이전까지 행해져 오던 전례¹⁾는 통신사행을 행할 때에 큰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통신사행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짧으면 5~6년 만에 통신사가 파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길면 삼십 년 가까이 그 간격이 떨어질 때도 있어, 이전 통신사행에서의 방법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거니와, 통신사행의 아주 세세한 일까지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다. 더군다나 양측의 기록이 다르게 기록되는 경우도 있어 양측은

1) 종가문서(宗家文書) 안에는 先例, 前例, 先規,와 같이 부르고 있으나, 그 뚜렷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본문에서는 이를 전례라고 통일하여 부르기로 한다.

전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전례를 놓고 옳고 그름을 다툰 때는 상대보다 상위의 포지션에 서기 위한 계산이 당연히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신묘사행(辛卯使行, 1711)의 빙례개혁(聘禮改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 물론 전례가 가지는 이러한 의미는 비단 신묘사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 통신사를 수행했던 쓰시마항(對馬藩, 이하 쓰시마)에게 전례를 지키는 것은 과연 의미였을까?

쓰시마는 조일관계를 연구할 때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로 이미 수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방면으로 그 업적이 쌓여왔다. 이 선험들의 연구 성과는 장순순(2013)³⁾에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장순순은 지금까지 쓰시마를 다루었던 기십 편의 연구를 망라하여 역사, 외교, 경제, 상호인식으로 나누고 이를 정리하여 앞으로 조일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쓰시마에 대해 어떤 인식을 견지해야 할지를 당부한 바 있다. 다만 필자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직 통신사를 호행(護行)할 때 쓰시마에게 있어서 전례가 어떤 식으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 전례를 지켜나가는 방식이야말로 통신사를 호행하는 쓰시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었을 것이다.

본고는 이에 아라이 하쿠세키의 빙례개혁 이후 이 전례에 대해 가장 민감했을 기해사행(己亥使行, 1719) 당시에, 사스나(佐須奈)부터 후츄(府中)까지의 영접사(迎接使)의 기록과, 신사기록(信使記錄) 중 신사부교(信使奉行, 이하 부교)가 작성한 매일기(每日記)를 중심으로 기해사행 전체에

2) 신묘사행 중 이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빙례개혁에 관한 연구는 정응수, 「아라이 하쿠세키의 조선通信使 의례 개정에 관하여」, 『일본문화학보』 24, pp.305~320, 2005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만 본고는 빙례개혁에 대한 영향이 추가 되지 않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한다.

3) 장순순, 「조선시대 對馬島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41, 2013, pp.15~60.

서 전례를 따르지 못한다고 하거나, 전례와 다르게 행해졌다고 기술되어
져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쓰시마가 어떤 기준으로 이를 대응하였고, 어
떻게 활용하였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전례가 불분명한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통신사행이 매년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통신사행
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늘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례가 불분명
한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럴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기록을 찾아
보거나, 상대의 기록을 비교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6월 28일과 같은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시간함을 올릴 선반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고 말해서, 檜物屋에 명
하시어 준비하라고 御勘定所에 말했다. 이 선반에 관한 것은 朝鮮人方
로부터 선규(先規)는 갖고 왔는가? 또는 이쪽에서 준비를 명한 것인
가? 기록과 勘定所 扨口 등을 잘 조사했지만, 분명하게 알 수 없었다.
그렇지만, 白木台라고 기록에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쪽에서 나왔다고
생각되고, 게다가 급한 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조사는 이루어지기 어
려워서 급히 준비를 명했다. (후략).⁴⁾

4) 信使記録番外『御參向信使奉行對府在留中每日記』6월 28일 御書翰箱載候台, 用意
仕り, 不參候由申候付, 檜物屋江被申付, 用意候様ニ御勘定所江申渡ス. 右台之義者,
朝鮮人方先規持渡候哉, 又者此方ニ而用意申付候哉, 記録并勘定所扨口等途吟味候
得共, 分明ニ不相知候. 然共, 白木之台と記録ニ候故, 多ク者此方ニ而, 出来申たるニ
而, 可有之与存, 其上, 急成事ニ故, 委細之吟味難成付, 急ニ用意申付ル. (후략).
(이하 중가문서를 인용할 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서명을 말하고, 이후에는
내제번호만을 기입하고자 한다.)

이 경우는 서간을 올려둘 선반이 없었는데, 이것을 본래 朝鮮人方가 들고 왔는지, 자신들이 제공했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다. 본래 어디가 준비해왔는지를 따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당장 써야 하는 것이기에 예전에 白木台였다는 기록을 찾아보고, 아마 이쪽의 나무였을 것이라고 정황에 맞춰 추측한 후 새로 제작을 주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비교적 작은 물건이기에 임기응변이 가능했을 것이다.⁵⁾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과거의 예를 되살리거나 새로운 예를 만들어낼 때는 그 나름의 기준이 있다. 아래 9월 14일은 전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였다.

이곳의 관리인 가야하라 모쿠우에몽(栢原左右衛門)이라고 하는 자가 요시카와 로쿠로자에몽(吉川六郎左衛門)에게 말하시길, “이곳 료탄지(竜潭寺) 주지는 을미(乙未, 1655), 임술(壬戌, 1682)의 통신사 이래로 삼사에게 대면하셨기에, 이번에도 대담을 하고 싶다.”고 말하셨기에 임술, 신묘년의 기록을 생각해봐도 보이지 않기에 조선인들의 기록을 비교해 보아도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대면을 한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봐서, 생각으로 나왔었기에 기록에서 보이는 않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전례는 두 번 오셨다는 것은 가문노카미(掃部頭) 가문의 기록에 있고, 신묘년에 오셨을 때는, 이 모쿠우에몽(栢右衛門)도 마침 있었기에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때의 주지가 그때는 선사의 반승으로 나왔다고 더불어 확실히 말해주는 이상에는 거짓이 있을 것도 같지 않으니, 당상역관(堂上訳官)에게 내밀히 이야기하여 삼사께 말하고, 만나주실 수 없겠는지 로쿠로자에몽에게 전했다. 정사가 이를 들으시고 “전례가 있어 비밀리에 만나는 것은 지장이 없으니, 면담을 하겠다.”고 하고, 가셨다. 다만 선규라고 하여, 한문 문서(真文書付)

5) 7월 28일에도 이와 비슷하게 양측의 기록을 대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재훈, 「대마도 종가문서(對馬島宗家文書) 일기도(壹岐島)에서의 기록-기해사행(己亥使行)의 기록을 『해유록(海遊錄)』과 비교하며-」, 『일어일문학연구』 68-2, pp.307-325, 2009.

와 시작(詩作)을 갖고 갈 것인데, 한문은 ‘執政志官’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다. 이 글자는 막부(幕府)의 로쥬(御老中)를 ‘執政’이라고 칭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자제시켰고, “시는 특별히 지장이 되는 글자는 없었지만, 막부 외의 자가 바로 삼사에게 시문을 드리고 것은 사양할 만한 성질의 것입니다. 충분히 전례를 검토하시고 그 후에 내야 하시면 내십시오.”라고 말했다.⁶⁾

료탄지의 주지승이 을미사행 이래로 계속해서 통신사가 행차할 때마다 삼사를 만났다고 하며, 삼사와의 면담을 요청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쓰시마의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전례로 삼는 신묘와 임술사행 어디에도 이에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쓰시마의 기록이 아닌, 가문노카미 가문의 기록에 있고, 또 쓰시마의 쓰지게치야쿠(通詞下知役)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전 통신사행에 방문했던 승려의 제자라고 하니, 정황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는지 이를 딱히 의심하지 않고 삼사와의 만남을 주선한다. 다만 그 와중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삼사에게 직접 시문을 보내는 것은 막부의 인원들로

6) 信使記録104 『參向信使奉行道中毎日記』9월 14일 * 当所役人・栢原左右衛門与申人, 吉川六郎左衛門へ被申聞候ハ, 当所竜潭寺住持儀, 明曆, 天和之信使以来, 三使江致对面候間, 此度茂対談仕度之旨被申聞候付, 天和, 正徳之記録相考候得共, 不相見ニ付, 朝鮮方之記録承合候而茂, 不相見候. 実ニ对面を申訳ニテ無之, 内所ら目見へ, 心ニ而罷出候故, 記録ニ不相見物与相聞候. 先例, 兩度為被罷出与申儀, 掃部頭様御家之御記録ニ有之, 正徳之節, 被罷出候時ハ, 右左右衛門茂居合候而, 覺居申候由, 尤, 此節之住持, 其節ハ先師之伴僧ニ罷出候由, 旁, 慥ニ被申聞候上ハ, 偽リ可有之事ニ無之故, 上々官江内證申達, 三使御耳ニ入, 御逢被成間敷哉与, 六郎左衛門へ申渡ス. 正使被承之, 先例有之儀ニ而, 内證ニ而逢申分ハ不支事候間, 可致面談之旨ニ而被相通, 尤, 先規之由ニ而, 真文書付, 并, 詩作可致持參候得共, 真文之儀ハ執政志官と申文字有之, 此文字ハ公儀御老中之儀を執政と称し候而, 持參候故, 差扣させ, 詩之義ハ別而相支候文字無之候得共, 公儀者之外, 直ニ三使江詩文被呈候儀ハ, 遠慮も有之筋ニ御座候候得与, 先例致吟味, 追而, 差出可然候ハハ, 差出可申候. 若も相支江候儀有之候ハハ, 差出し申聞敷候間, 左様ニ可被相心得由, 申聞ル. 三使逢被申候而, 追付, 被罷帰ル. 六郎左衛門, 并, 雨森東五郎, 通詞下知役, 次之間ハ罷有ル. 上々官兩人相附居ル.

한정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쓰시마가 전례를 지킴에 있어 무엇이 기준이 되었는지 대략적인 짐작을 할 수 있다. 8월 18일의 기사를 살펴보면 아베 이세(阿部伊勢)가 소면 한 묶음을 보내온다. 그러나 이는 신묘사행에서는 있었지만, 임술사행에서는 없었던 일로, 막부가 개선되지 않은 전례를 갖고 지시를 내린 것이었다. 이에 대해 쓰시마는

“멀리서 보내셨으니, 받으시라고 하면 어떠십니까? 물론 도주(對馬守, 이하 도주)에게도 말씀 드리십시오.”라고 말했더니, “도주께서도 선물이 있어도 받지 않으십니다. 삼사에게는 멀리서 오셔서 받으셔야 한다고 바로 도주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해 와서, 당사역관을 통해 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을 보냈는데, 삼사로부터도 당사역관을 통해 상응하는 답례가 있었다.⁷⁾

기해사행에 들어서 도주는 사전에 정해지 것 외에는 지방의 다이묘(大名)들에게서 일체의 물건을 받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에 아베 이세가 보낸 것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릇된 선례를 따랐다고는 하지만 막부의 지시로 보내는 물건을 돌려보내기 쉽지 않아서였는지, 삼사들에게는 전례가 없지만 이를 받게 한다. 전례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막부의 지시와 체면이 최우선이었을 것이다. 위신을 지켜야 할 대상은 막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6월 30일 기록을 보면

도주의 아드님에게 삼사가 보낸 목록, 외면의 양식의 전례는 수신인이 없이 ‘단자(單子)’라고만 쓰는 것도 좀 그러하니 이름을 쓰겠다고 말하셨지만, 이름을 쓰는 것은 불경스럽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니,

7) 信使記録9, 8월 18일, 遙々為被差越儀二候間, 被致受用候様二仕, 如何可有之候哉。勿論, 御前二茂被申上候様二申遣候処, 殿様二茂御音物有之候得共, 御受用不被成候。三使二者, 遙々為被差越事二候間, 被致受用可然旨, 則御前二茂申上候由申來候付, 上々官を以, 口上申達, 御音物差出候処, 三使ら茂上々官を以, 相応之一礼有之。

“선격(先格)에 따라 써주십시오”라고 말하고 통사에게 은밀히 말하길, “広千代님에게 드리는 문서는 예가 좋지 않으니, 다른 문자로 바뀌주 시도록 바랍니다. 이것은 그대들 마음에 들도록 해서, 당상역관에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쪽에서 말하길, “외면에 ‘봉정(奉呈)’이 나 ‘봉증(奉贈)’ 둘 중 하나를 써 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아직 어리 시기 때문에 ‘봉정’은 좀 그러하니 ‘贈平胤公’이라고 쓰겠다.”고 말해 왔다.⁸⁾

도주의 아들에게 삼사가 선물을 보내는데, 기존에는 목록의 표지에 이름을 쓰지 않고 ‘단자’라고만 적었던 것 같은데, 이름을 써서 보내겠다고 통신사가 연락을 해온다. 이에 쓰시마 측에서는 겉으로는 전례에 따라 달라고 말하면서도, 통사들을 통해 조용히 ‘봉정’이나 ‘봉증’과 같이 정중한 표현으로 바꾸도록 요구한다. 양측이 전례를 변경하기로 합의를 먼저 하고, 이전의 격에 맞출 것을 요청하면서도 내밀히 통사들을 통해 ‘奉’이라는 글자를 쓰도록 요구한 것이다. 결국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막부뿐만 아니라 쓰시마 내의 질서에 따르도록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奉’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은 단순히 쓰시마 내의 질서를 지킨다는 의미보다 통신사가 쓰시마 도주의 아들에게 ‘奉’한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통신사와 쓰시마와의 상하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처럼 새로이 생겨난 예가 쓰시마에게 있어 불리한 경우에는, 이것이 정례(定例)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6월 29일에 삼사들이 쓰

8) 信使記録番外, 6월 30일 * 若殿様江三使ち之目録, 外面之式, 先例宛所無之, 單子と計書キ候茂如何二候故, 御名を書可申由被申候得共, 御名書キ候義者不敬之筋二候故, 無用ニいたし, 先格ニ準し, 書載被致候様ニ与申達, 通詞江内々ニ而申聞候者, 広千代様江進物之書付者例不宜候間, 外之文字ニ改られ候様ニ有之度候. 此段, 其方共心入之様ニいたし, 上々官へ申達候得と申遣候. 從此方, 申遣候者, 外面ニ奉呈か, 奉贈か, 兩様之内, 書載候様ニ与申遣候処, 未, 御幼少ニ被成御座候故, 奉呈者如何二候故, 奉贈平胤公与可相認由申来ル.

지게치야쿠들을 만나자는 요청을 한다.

“ 쓰지게치야쿠들을 만나겠다고 삼사가 말하셨기에, 모두 아사가 미시모(麻上下)를 입고 나와 뒷마루에 늘어서서 일동 일본식 예를 행했다. 다만 이는 전례가 없기에 상례가 되질 않는다.”⁹⁾

이는 전례에 없던 일인데, 이것이 다음번의 전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례가 되질 않는다(常例ニ不成也)”라고 하고, 정식으로 만나는 것처럼 읍이나 배를 행하지 않고 일본식으로 인사를 하였다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다음 통신사행 때, 전례가 있는데 왜 인사를 하러 오지 않는지 통신사 쪽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Ⅲ. 통신사 측에서 전례와 다름을 말한 경우

양측이 갖고 있는 전례가 서로 다르거나 한쪽이 전례를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다만, 전례는 ‘삼사의 이마(居間) 입구의 주렴(暖簾) 근처까지 서원의 고쇼(小姓)가 갖고 가서 조선 측의 소동에게 건넸다’인데, 삼사가 당상역관을 통해 “일본의 소동은 결국 보질 못했으니, 바로 일본의 소동이 다니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서원이 소동이 바로 삼사가 다닐 때 시종일관 근무하였다.¹⁰⁾

9) 信使記録番外, 6월 29일, 通詞下知役中江逢可申之由, 三使被申候故, 何茂麻上下着, 罷出, 縁類ニ並, 一統日本之礼仕ル. 但, 是者前例無之, 常例ニ不成也.

10) 信使記録番外, 6월 27일, 但, 先規, 三使之居間口暖簾際迄書院小姓持參り, 彼方小童ニ相渡候処, 三使上々官を以日本之小童, 終ニ見不申候間, 直ニ日本小童通イ為致

이는 6월 27일의 기록인데, 삼사가 있는 곳에서는 일본의 소동들이 일을 했는데, 일본의 소동들이 보이지 않아 삼사가 당상역관을 통해 그 수정을 요청한 것이다. 본인들이 전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 쓰시마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이에 대한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은 채로 이를 시정한다. 그러나 양측이 부딪히는 경우도 찾을 수 있다.

다만 세이잔지(西山寺)도 깊숙이 두 번 읊을 하시고, 삼사는 가벼이 답음(答摺)을 하는 것이 선규(先規)였는데, 오늘은 도주님과 단초로(湛長老)의 대면이 끝나고, 삼사가 자리에 앉은 이후에 세이잔지가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손을 드셨다. 이 전례에 다른 것을 당상역관에게 이야기했다.¹¹⁾

6월 29일 삼사와 도주의 만남 이후에 통신사 측에서는 전례를 따르지 않았다 하여 불만을 제시하는데, 삼사는 당상역관을 통해

삼사가 당상역관에게 말하길, “오늘 세이잔지는 배(拜)를 할 것이었는데, 허술한 형식이었다고 말하셨다”라고 통사를 통해 재판에게 이야기해서, 답변하길 “선규는 세이잔지가 깊숙이 두 번 읊을 하고, 삼사도 일어나서 가볍게 답음을 하시는 예로 되어 있는데, 세이잔지가 늦게 나왔고 삼사가 빨리 자리에 앉아서, 앉은 상태에서 답음을 하셨

候様ニ被申候付、書院小姓直ニ三使之通イ始終相勤ル。

- 11) 信使記録番外, 6월 29일 * 殿様, 本堂江御場被成候時, 三使縁類南之方江被出向, 殿様者北之方ニ御立, 互ニ御手を被揚, 御会積被遊, 本座南之方, 御茵之前ニ御立被成, 続而湛長老, 是又三使与互ニ手を被揚, 会積有之, 座江御通り, 西山寺ハ少シ退ぎ, 罷通, 引下り, 立並, 三使も茵之前ニ立並, (欠字)殿様三使一同ニ二揖被成, 相濟而, 以酌庵と三使二揖. 畢而, 西山寺も眞之二揖被仕, 三使ハ草之答礼有之, 相濟而, 御双方茵之上ニ御着座, 西山寺ハ茵無之.

但, 西山寺茂眞ノ二揖被仕, 三使者草之答揖有之先規ニ候得共, 今日(欠字)殿様, 湛長老御対揖相濟, 三使者座以後, 西山寺罷出候付, 居ながら, 手を被揚ル. 右, 先例ニ違候誤, 上々官江申届ル.

기에, 세이잔지도 가볍게 읍례를 하였습니다. 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선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틀린 것은 저희 쪽에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쪽에서 여러모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삼사에게 말하고, 잘못된 것은 기록에 남겨 두시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세히는 저희 쪽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¹²⁾

삼사의 이야기는 본래 세이잔지가 배를 해야 했는데, 배를 하지 않고 읍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쓰시마의 주장은 삼사가 너무 자리에 빨리 앉았기에 배를 하지 못하고 읍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법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보다 더 서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우나 예법이 소홀한 것은 곧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6월 27일의, 소동을 요구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이는 전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통신사가 예를 어겼다는 것을 통신사 측의 기록에 남겨 놓으라고 이야기한다. 다음 통신사행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통신사 측에서 전례와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은, 오일차를 수령하는 장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7월 19일의 기록을 찾아보면, 오일차가 이전과 다르다며 당상역관이 나와 신묘사행 때의 장부(帳面)을 보이며 불만을 제기한다.

군관 세 명이 동행하여 와서, 하행(下行) 때의 장부를 갖고 와서,

12) 信使記録番外, 6월 29일 “三使ち上々官江被申聞候ハ, 今日西山寺ハ拜仕筈ニ候處, 粗未成仕形ニ候段被申候由, 通詞を以, 裁判江申聞候付, 致返答候者, 先規, 西山寺真之二揖仕, 三使茂御立, 草之答揖被致例ニ候處, 西山寺遅ク進ミ出, 早三使被致着座, 居ながら答揖被致候故, 西山寺茂輕ク揖禮いたし候. 拝いたし候与之儀, 先規決而無事候. 右, 間違之段者, 此方ち御届可申と存候處, 却而其元ち何角と被仰聞候段, 難心得事候. 此旨, 三使江申達, 間違之誤, 記録ニ記し被置候様ニと可申達候. 委細者, 此方ち可申達旨申遣ス.

“삼사의 오일차에 꿩, 염장도미, 말린 물고기가 보이지 않고, 그 대신에 しそたて, 청대두, 유자 등이 보여서 물건 수는 틀림없지만 물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받기 어렵습니다.”고 해서 “신묘년 장부에 꿩은 없고, 말린 물고기는 중관 이하의 하행에 있습니다. 상관 이상의 하행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번 첫 하행에는 생선이 없는데, 이번에는 생선이 보이니 받으십시오. 계절에 따라 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설득했는데(후략)¹³⁾

통신사 측에서 신묘년 때 받았던 것과 내용물이 달라졌다고 항의한 것인데, 쓰시마는 계절에 따라 품목이 달라질 수 있고, 통신사의 기록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을 한다. 통신사가 이를 잘 수용하여 물품을 수령했는데, 양측에서는 하행조차 이전 통신사행의 장부를 갖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내용으로 8월 3일에도 도주가 삼사와 당상역관들에게 항주머니를 보냈는데, 삼사가 이전 기록을 보고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다. 당상역관은 돌려보낸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쓰시마 측에서는 예전의 예를 보면 다 받았다고 이야기한다.¹⁴⁾ 두 사건 모두 통신사 측 기록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서로의 전례

13) 信使記録99, 7월 19일, 軍官三人相附来, 卯下行, 帳面致持參, 三使之五日次ニ稚子塩鯛, 干魚不相見, 其代リニしそたて, 青大豆, 花柚等相見へ, 色數ハ相違無之候得共, 品劣リ候故, 難請取旨申候付, 卯之年之帳面ニ稚子ハ無之, 干魚ハ中官以下之下行ニハ有之, 上官以上之下行ニハ無之候. 其上, 先年初度之下行ニハ生肴無之候處, 此度ハ生肴相見候間, 受取候様ニ, 時節ニより品々違ハ無之候而, 不叶事ニ候由, 申諭候處, 그러나 6월 30일자 기록에 ‘韓僉知, 上判事, 製術官, 写字官, 画師江之御料理, 先規二汁七菜ニ而候處, 此度ハ彼方存違ニ而, 一汁四菜ニ成リ申候. 上々官へもいつも二汁五菜, 又者七菜ニ而, 被下候筈ニ相極ル.’와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다. 通信使들에게 보내는 요리가 작오로 빈약하게 나갔는데, 별도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외에도 요리의 변경에 관한 부분은 많이 있으나 뚜렷하게 通信使 측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모습을 찾을 수는 없었다.

14) 信使記録99, 8월 3일, 昨日, 殿様ち三使方江為御見廻, 御使者を以, 匂袋五ツ宛被遣之候處ニ三使共ニ一宛被致受納, 其餘ハ返進有之候. (중략) 依之, 韓僉知へ如何様之訊ニ而, 一ツ宛受納, 餘ハ被致返進候哉与相尋候處, 前々之記録ニ一宛受納, 余ハ返

를 확인하는 모습인데, 통신사 측에서는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점은 흥미롭다. 다른 경우로 10월 2일자 기사에는, 삼사가 이전의 도메가키(留書)를 보고서, 객관에 비치하는 물품이 이전의 기록에 비해 부족한 것을 이야기한다. 쓰시마 측은 다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상역관이 “대체로 이런 물건까지 생략하시려고 하면 그 사정이 그쪽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번 삼사들이 난처하게 생각한다.”¹⁵⁾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 양쪽 모두 전례에 차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전례가 적힌 기록을 보며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통신사행의 기록이 어떻게 남을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 통신사행이 다음 통신사행의 전례가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례에 어긋난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대우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전례로 남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다.¹⁶⁾

進与記有之候故，不殘ハ不被致受納与之御事候由申聞候付，韓僉知を以，三使江申達候者，昨日，太守ら匂袋被遣候ハ，旧例有之儀ニ而，何茂御受納御座候処，此度尙宛被仰請，餘ハ御返進之儀，太守快被存間敷候間，不殘御受納被成可然存候由，申達候処， 이후 같은 날，三使가 보낸 구상서에는 ‘先例不殘申請候間，此度茂其通二いたし候様ニ奉行中被申聞候間，不殘申請度候.’라고 하여 다 받기로 결정하였으나, 정사의 기록에는 일부를 돌려보냈다는 기록만 남아있다.

- 15) 信使記錄99, 10월 2일, 惣而，ケ様之物迄被相省候様ニ有之候而者，其誤彼方記錄ニ留申候故，此度之三使衆難義ニ存候
- 16) 그러나 이와 같이 전례로 남는 것에 대한 문제는 통신사 측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다. 가령 12월 19일의 기사를 보면 접대처에서 쌀감과 석탄이 부족해지자, 삼사와 협의하여 이를 당분간 수령하지 않도록 조율을 하는데, 그 와중에 접대처에게도 “이것이 이후의 예격(例格)이 되질 않습니다.”와 같은 말을 남기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접대처의 오일차가 소홀해지면 무엇보다 가장 난처한 것이 쓰시마기 때문일 것이다.(信使記錄122, “打続，不順ニ而，久々爰許逗留ニ付，御馳走方御造作強ク候。然處，三使乘リ船并ト船共ニ炭，薪等者焼余候程有之，差支無之候故，暫ハ右兩様五日次ニ被入候儀被差扣候様ニ御了簡被成，如何可有之哉之旨，上々官を以，三使江申達候処，成程尤ニ存候。當時，不差支事ニ候間，先，暫炭薪之儀ハ相渡候儀被差扣可然与之返答，上々官を以有之候付，則，裁判・六郎左衛門江申舍，関太左衛門江対面，右之趣委細申達，以來之例格ニ罷成儀ニ而ハ無之候。当分，炭薪不自由ニ無御座，優數ニ有之候故，當時之了簡を以，三使ら茂，右之通被申候。)

Ⅳ. 통신사 측에서 전례를 따를 것을 거절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들은 기존의 어느 한 쪽의 전례가 올바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들은 기록의 소실이나, 미비, 어긋남 등에 의해 발생한다. 반면에 전례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전례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기해사행 중에서 전례를 따르지 않은 것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으로, 쓰시마의 후츄에서 도주와의 예법을 다툰 사건과 다이부쓰지(大佛寺)의 방문을 거절한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이 두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전례를 마치 통신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두 사례에 대한 쓰시마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후츄에서 일어난, 도주와 신유한의 예법논쟁의 징후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6월 21일로 부산을 출발하여 사스나에 도착한 그 다음날이었다.¹⁷⁾ 이날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는 삼사의 요청으로 영접사(迎接使)라는 호칭을 영접관(迎接官)으로 고치게 한 것이다. 사스나에 도착하고 다음 날에 도주로부터 술과 스키쥬(杉重)와 같은 선물이 삼사들에게 도착했다. 이를 수령하고 나서, 당상역관을 통해 '사부로자에몽(三郎左衛門)이 보낸 선물도 구례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용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목록에 영접사라고 되어 있는 모양으로 구례에 있지만, 우선 使라는 글자는 삼사가 마음에 들어 하시질 않습니다. 官이라는 글자로 고쳐서 보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선물을 모두 거절하실 기세입니다.'¹⁸⁾와 같이

17) 이 건에 관하여 신묘사행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구례로 서로 인식하고 있는 예법을 통신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거절하는데, 이는 7월 3일의 신유한의 논쟁 때와 마찬가지로이다. 게다가 이런 경향은 후츄에서만으로 한정된다.

18) 信使記録10 『國書并迎杉村采三郎左衛門佐須奈迄被差越覺書』 6월 21일, 郎左衛門ら之音物之儀も旧例之事之故, 弥受用可仕候。就夫, 目錄ニ迎接使と有之, 認様, 旧例ニ而可有之候得共, 差当, 使之字之儀, 三使心ニ不叶候。官之字ニ御直し可被遣候。左様

이야기를 한다. 구레라고 하였으니, 늘 해오던 방식으로 영접사라고 표기했는데, 삼사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쓰시마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에 따라 임의로 마쓰우라 기우에몽(松浦儀右衛門)에게 ‘使’와 ‘官’의 모양을 조사했는데, “官보다 ‘使’라는 글자가 조금은 좋게 생각되지만, 그다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로 고쳐서 틀림없이 보내야만 합니다.”라고 말해서 적당히 그대로 고쳐서 보냈다. ‘使’를 ‘官’으로 바꿔서 보냈다. ‘使’와 ‘官’의 차이만의 수정이기 때문에, 이를 고쳐 쓰고, 목록은 여기에 기재하지 않았다.¹⁹⁾

“使”를 쓰면 통신사와 동일한 위치처럼 느껴지기 때문인지 굳이 “官”으로 수정을 요청한 것 같은데 쓰시마 측에서는 아직 신묘사행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못해서인지,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모양이다. 한문을 담당하는 眞文役에게 두 문자의 차이를 물어보지만 크게 상관 없을 것 같다는 대답에 통신사 측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인다. 이 날에 전례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통신사 측의 요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사스나 도착 익일에 예정되어 있던 영빙사(迎聘使), 영접사, 재판(裁判), 도선주(都船主), 접대역(接待役)과 상견하는 예식에 관한 것이었다. 양측의 말을 종합해보면 임술, 신묘년 모두 양측이 자리에서 일어나 읍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삼사들은 임술, 신묘의 전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쓰시마의 인원들이 읍례를 하면 삼사는 자리에 앉아 손을 들겠다고 이야기한다. 쓰시마의 기록에는

無御座候而ハ、御音物共ニ御理可被申勢ニ御座候。

- 19) 信使記録10, 6월 21일, 依之, 於勝手, 松浦儀右衛門へ使官之あや途吟味候処, 官之字ラ使之字, 少者宜存候得共, 差而大イ成違目無之故, 望之通, 改之直し, 無違却, 相渡可然之旨申候付, 節, 其通改之遣候. 使を官之字ニ改遣候. 使官之違計之直ニ候故, 書改之, 目錄爰ニ不記之候也.

사부로자에몽이 말하길, “여러모로 틀림을 말하시어, 예식을 소홀히 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기에, (여기에서) 머물게 되더라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국서가 여기까지 무시히 도착하고, 삼사들도 별 탈 없이 도착한 것을 어젯밤 후츄에도 보고했는데, 저는 돌아가서 상세한 내용을 도주님에게 말씀드리고, 구상을 막부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변변히 머무는 것도 어려우니, 바로 승선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후츄에서 논할 것이니, 이것은 삼사들에게 주의시켜 주십시오.”라고 전하고, 숙소로 돌아갔는데…(후략)²⁰⁾

와 같이 대응을 한다. 통신사 측에서 개선을 주장하며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쓰시마의 기록대로라면 100년이나 지난 옛 사행의 예법으로,²¹⁾ 쓰시마 측에서는 임술과 신묘의 예를 무시하며 예법을 바꾸고자 하는 것에 관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정사의 기록을 보면 ‘문안차왜가 얼굴에 노기를 띠고서는 우리를 보지도 않고 돌아가 버렸다. 도중의 차왜가 이미 도주의 명을 받았음에도 사신을 보지도 않고 명을 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돌아가 버렸으니, 이는 몹시 해괴한 일이다²²⁾’와 같아,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해행총재(海行摠載)』에 수록되어 있는 사행록(使行錄) 가운데에,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100년 전의 기록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삼사 뿐만 아니라 사부로

20) 信使記録10, 6월 21일, 三郎左衛門申入候者, 何角と違却被仰聞, 礼式を御欠被成候段, 至而氣之毒ニ存候故, 在留いたし候而成共, 不申論候而ハ不叶義候得共, 国書, 是迄無悉到来, 三使衆茂無異儀, 参着候段, 昨晚府内へも致注進候得共, 拙者罷歸, 委細之趣(欠字)太守江申達口上, 東武江も注進有之事二候. 左様ニ弁々と在留も難仕候間, 追付乗船可致候. 委細之儀ハ府内ニ而可申論候間, 此段三使衆へ相心得可申達旨申達, 宿江罷歸候処,

21) 信使記録10, 6월 21일, 是八百年以前之例二而, 段々近例有之候得ハ, 今日, 此百年以前之例を御用可被成与有之候段, 難得其意候旨, 韓僉知, 金僉知江申聞,

22) 『해사일록』 6월 21일, 정사 홍치중의 기록인 『해사일록』에 관해서는 ‘허경진 역 통신使 使行錄 번역총서12 『海槎日錄』 보고서, 2018’의 것을 사용하였다. (본문의 인용은 p.64)

자에몽도 100년도 지난 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양 측이 당시에 이에 관련된 기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문제는 후츄에 도착하는 6월 27일에도 계속 연결된다. 사행록과 쓰시마의 기록에는 후츄에 도착하는 당일에 도주와 삼사들이 인사하는 장면만 기록되어 있는데, 본래 부교들도 포구에 들어오는 삼사들에게 읍례를 했던 것 같다. 다만, 사스나에서 논하던 예법에 관한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사, 부사, 종사의 배가 엇갈려 갈 때, 일어나서 각각에게 두 번 읍을 하였다. 삼사도 곡록(曲録)에 앉아서 손을 들어 솜穧가 있는 것이 예지만 (중략) 이에 따라 오늘 배 너머 읍례는 오오시로(多四郎)를 통해 전달한 답변한 내용 때문에, 배 너머로 읍례는 행하지 않았다.’²³⁾와 같이, 아예 인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사들의 주장은, 국왕사인 삼사들이 배신(陪臣)들에게 서서 답할 수 없다는 명분²⁴⁾이었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다. 이 문제는 28일이 되어서야 겨우 해결이 되는데, 부교들이 삼사에게 다음과 같은 구상(口上)을 보낸다.

(전략) 이것은 가까운 예(例)에 조금도 없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가볍게 답음하실 때, 삼사 자신에게는 그다지 관체를 손상하신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 부교들에게 이르러서도 앉아서 손을 올리는 것은 비욕(鄙辱)하기 그지없지 않을까 싶은 일입니다. 대체로 쓰시마는 귀국의 일가와 같아, 특히 신사 때에는 양국의 대사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모든 일을 설명하여 쌍방일치의 마음이 되어 전말을 좋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사소한 일에 구애하여 부교들을 만나 뵈는 것도 하지 않으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략) 아무쪼록 조

23) 信使記録番外, 6월 28일, 正使, 副使, 従事之船行違候節, 立而, 銘々ニ二揖仕, 三使茂曲録ニ懸ながら, 手を揚會積有之例ニ候得共, (중략) 依之, 今日船越之揖礼, 右多四郎を以, 申遣候返答之趣ニ候故, 船越之揖礼不仕候也.

24) 信使記録番外, 6월 28일, 先例三使答揖有之候得共, 国王使之儀ニ候へハ, 陪臣ニ対し, 立而答礼仕答之儀無之候.

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 점을 충분히 확인하시어, 오랫동안 행해 오던 예식대로 하신다면, 모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양찰해주시길 바랍니다.²⁵⁾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통신사행을 위해 기존에 해오던 예법을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정사 홍치중의 기록에는 ‘그러니 충분히 생각하여 선처하는 대로 따라준다면 도주에게도 심히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말을 전하였다. 이에 도주가 간절하게 요청한 말이 있었고, 또 이로 인해 허락해 준 것도 있고 또 너무 야박한 것 같기도 하여, 마침내 부사 및 종사와 상의하여 근래의 전례를 따라 들어와 인사하도록 허락하였다²⁶⁾와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쓰시마 측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은 따로 없이, 당상역관이 예법과 관련하여 도주를 방문했고 삼사가 이를 납득했다는 기록만 남아있는데 반해 정사는, 삼사가 도주를 설득하고자 당상역관을 보냈으나 도주가 이를 듣지 않고 전례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기에, 결국 삼사들끼리 합의하여 쓰시마가 주장하는 대로 최근의 예법을 따르게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예법의 문제는 양측의 상하가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없기에, 이 문제는 삼사와 도주가 직접 이야기를 걸쳐서야 겨우 결론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부교들과 삼사가 대면할 때 행하는 예법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비슷한 성격의 문제가 6월 30일에 또 일어난다. 바로 제술관(製述官)

25) 信使記録番外, 6월 28일, 此儀近例纔ニ無之事ニ候段者勿論, 輕ク答揖被成候時, 三使御身ニ者, 指而, 官體を被損候與申程ニ者無之, 奉行中ニ及候而者, 居ながら, 手を被揚候段, 鄙辱之至不申與而茂, 御察可有之事ニ候. 惣體, 對州之儀者, 貴國御一家同前ニ而, 殊ニ信使之節者, 兩國之大事ニ候故, 幾重ニ茂諸事申合, 双方一致之心ニなり, 首尾能有之候様ニと存候処, 々様之微事ニ拘り, 奉行中へ懸御日候事茂成不申候而者, 如何敷事ニ存候. (중략)何とそ少々御心ニ叶不申候とも, 此段御聞届被成, 年久ク被取行候, 例式之通ニ被成候ハ、, 何茂大悦可存候. 宜御諒察頼存事御座候, 以上.

26) 『해사일록』 6월 28일, p.59.

이었던 신유한이 도주에게 행하는 예법을 문제 삼아 연회에 나가기를 거부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연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기에,²⁷⁾ 쓰시마의 대응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간략하게 사건을 정리하면 6월 30일은 도주가 기예를 보고자 제술관과 사자관(写字官), 화원(画員)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날이었다. 저택에 들기 전에 예법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제술관이 이를 부당하다고 거부한다. 이에 대해 쓰시마는

오늘 밤 도시요리(年壽)들을 보내어 상관들이 배례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지, 또는 그것에 관해서 삼사가 연향에 가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말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처치하십시오.’라고 하는 것까지 논의를 하고, 내일이라도 말씀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오늘은 제술관을 시작으로 사자관, 화원까지도 도주님 앞에 가는 것은 제지시키고, ‘화원은 다음’으로라고 명하시면 특별히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어쩐지 도주님 앞에 부르시는 것은 오늘은 관두셔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이 내용을 도주님께 말씀드렸기에, 오늘은 일동의 배례는 명하시지 않았나.²⁸⁾

와 같이 대응한다. 일단 일정을 다음으로 미루고, 삼사가 또 부교들과의 대면에서처럼 예법을 문제 삼아 방문을 거절할 때 어떻게 말해야할지 저녁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 예법에 관한 문제는 비단 삼사와

27) 이재훈, 「己亥使行의 嚴原에서의 예법논쟁—『海游錄』과의 증가문서를 비교하여, 『日語日文學研究』 71-2, 한국일어일문학회, pp.487-503, 2009를 참고하기 바란다.

28) 信使記録番外, 6월 30일, 今夕年壽中指寄候而, 上官中拜礼不罷成と申候歟, 又者其儀二付, 三使宴享二罷出間鋪と被申候時者, ケ様へ二御処置可被成と申事迄, 議論を詰置キ, 明日二而も被仰掛可然候. 所詮, 今日者製術官をはしめ, 写字官, 画員迄も御前二罷出候事, 御止又被成, 書画者御次二而, 被仰付候へ者, 別而指支候事無之候故, 何二となく(欠字)御前江被召出候事, 今日者被相止可然と申談候而, 右之趣, (欠字)御前へ申上候二付, 今日者一統之拜礼不被仰付候也.

제술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관, 상관들 또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²⁹⁾ 일단 모임을 중지시키고 혹시 모를 삼사의 대응까지 생각해 놓으려고 한 것이다. 그날 저녁에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따로 적혀있지 않으나, 다음날인 7월 1일의 기록에는 당상역관을 불러 30일의 경위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이 일은 제술관 혼자만이 아니라 내일 모레 저택에 가 있을 때에, 배례를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으니, 청컨데 전례를 써 주십시오”라고 말해서, 다행히 문서를 갖고 왔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으면 삼사에게 가는 길에 보여 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중략) 잠깐 있다가 三使들이 나와 말하길, “신묘년의 전례를 보았습니다. 전례가 있음에 틀리다 할 것도 없기 때문에, 확실히 신묘년의 예에 배례한 것처럼 명확하겠습니다. 군관, 상관사의 배례의 선후에 관해서는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신묘년 가까운 예대로 하면, 확실히 좋습니다.”라고 말하였다.³⁰⁾

와 같이 이야기한다. 예법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당상역관이 예법을 적어서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다행히 갖고 있다며 갖고 있던 예법을 건네주고 삼사에게 보여주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부교가 통신사행을 수행할 때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었던 메모와 같은 것이었는지, 혹은 일부러 보여주려고 마음먹고 갖고 온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기에는

29) 信使記録番外, 6월 30일, 総体, 今度之三使, 佐須奈をはしめ, 礼式之事六ヶ敷被申, 殊ニ正徳年以来拜礼之儀ニ付, 軍官共違却申事ニ候得者, 此度も製術官耆人之心ニ而も無之, (중략) 上官中皆々(欠字)御前江罷出, 拜礼相勤候事, 不快存候而, (후략)

30) 信使記録番外, 7월 1일, 右之義, 製術官一巳之儀ニ而無之, 明後日(欠字)御屋敷江罷在候節, 拜礼難仕与申筋ニ拘り居申候間, 願者, 先例を書付被下候様ニと申候ニ付, 幸, 書付致持參候間, 不苦候ハヽヽ, 三使道江掛御目候様ニ申達候処ニ (중략) 暫間有之, 三使共罷出, 申聞候ハ, 正徳之例, 致披見候. 先例有之義ニ異難為申様も無之候間, 弥正徳之例ニ拜礼仕候様ニ可申付候. 軍官, 上判事拜礼, 先後之義者, いつれに致し候而も之議ニ候へ共, 正徳近例之通ニ候得者, 弥宜ク御座候与, 被申聞ル.

신묘와 임술사행 당시의 예법이 모두 적혀 있는 것이었다. 삼사는 그 중 신묘년의 예법을 따라도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예법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섭들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7월 3일에 이르러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7월 3일 오전에 신유한이 예법을 문제 삼아 다시 한 번 참석을 거절하고, 삼사들마저 당상역관을 통해 통신사가 갖고 있는 옛 기록을 보이며 참석을 거부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러모로 설득하고 “아무래도 꼭 그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술관은 병이라고 말하고 나오지 않으면 끝날 일인데, 제술관에 연연해서 삼사가 연회에 나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수차례 말하게 하여, (중략) 이런 사사로운 일 때문에 여러모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러하니 애당초 제술관이 연회에 나오지 않던가, 또는 연회에 나오더라도 다시 한 번 도주 앞에 나오는 것을 관두던가, 두 개 중에 잘 처리해 달라고 생각해서, 몇 번이나 논담에 이르렀지만, (중략) 이 두 항목을 삭제하고 건넸다.³¹⁾

위의 인용문은 쓰시마의 반응인데, 이 날의 연회는 막부가 베푸는 것으로 삼사가 불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삼사가 없으면 연회를 진행할 수 없고, 연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전례를 어긴다는 의미보다는 막부에 대한 무례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쓰시마는 먼저 ‘병이 났다고 하고 제술관을 불참시켜도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혹은 공연(公宴)에서만이라도 정확하게 인사를 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

31) 信使記録番外, 7월 3일, 色々説キ諭し, 其上是非と被存候ハ、製術官病氣と申, 不罷出候へハ, 相濟事二候處, 製術官之義二拘り, 三使宴席二御出被成間敷との義, 難心得候」と數遍為申間, (중략) 케樣之微事二付, 兎や角申論候段, 如何二候故, 所詮, 製述官宴席二不罷出候歟, 又ハ宴席二罷出候共, 再度御前江罷出候義, 相止候力, 兩樣之内, 變通被成候へと存, 數遍論談ニ及候へ共, (중략) 右之二ケ條除之, 相渡候.

러나 삼사는 끝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부교들은 도주에게 “제술관이 도주님께 나가는 것은 양국 성신의 큰일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일본에서 학사(學士)라고 칭하고 중한 직분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지만, 원래 그렇지 않고, 특히 이번의 제술관은 백의의 진사(白衣之進士)라고 해서 더더욱 그러니, 부르시면 더 안 됩니다.”³²⁾와 같이 말하며 제술관이 시를 증명하는 항목을 제거하라고 요청한다. 예법을 지키지 않아 도주 체면이 깎일 바에야 행사 중의 하나 정도를 생략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에 통신사행에서 제술관이 사연(私宴)에 들어, 도주에게 시를 선보이는 것은 폐지되었다. 이는 단순히 전례를 다루는 일이 아니라, 예법에 관련된 것으로 쓰시마의 체면이나 권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다이부쓰지 방문을 삼사가 거절한 사건은 이 후츄에서의 예법논쟁처럼 단순히 체면의 문제만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다이부쓰지 방문은 11월 1일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또한 통신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거절한 경우에 해당한다.³³⁾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면 이전까지는 다이부쓰지 방문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던 통신사들이 방문하기 전날에 이르러, 지금까지의 통신사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모신 곳이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방문했는데, 이를 알게 되었기에 더 이상 방문할 수가 없다는 뜻을 내비친다. 후츄에서와 마찬가지로 막부가 제공하는 연회에 삼사가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다. 더군다나 제술관이 예법을 문제 삼을 때처럼, 제술관 하나 참가를 생략시

32) 信使記録番外, 7월 3일, 製述官御前江罷出候義, 兩國誠信之大義ニ預リ候事ニ而も無之, 殊日本ニ而學士ととなへ候而, 重キ職分之様ニ相心得居候得共, 元來左様ニ而者無之, 殊ニ此度之製述官ハ白衣之進士之由ニ候得者, 弥以之事ニ候間, 被召出候事, 御無用可被成との御事候故,

33) 이 호코지 방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 이재훈, 「己亥使行과 호코지」, 『일어일문학연구』 84-02, 한국일어일문학회, pp.427~447, 2013.

킬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었다. 쓰시마는 게이잉(京尹)인 이가노카미(伊賀守)에게 연락을 취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한다. 출발이 하룻밤 지체되더라도 반드시 설득하라고 하는 이가노카미의 대답에 대해, 도주는 “상세한 대답 송구합니다. 삼사에게 말하여 승인하지 않으면 또 보고를 드려야 합니까? 또는 바로 출발해야 합니까?”³⁴⁾라고 이야기를 한다. 쓰시마는 통신사를 다이부쓰지에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³⁵⁾ 다만 이는 전례이고, 강정에서 정한 연회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마는 삼사가 아예 다이부쓰지에 들르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이다. 쓰시마와 이가노카미의 태도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상담을 마친 이후에 도주가 삼사를 불러 다시 한 번 설득을 하는데, “다이부쓰(大佛)는 도쿠가와(徳川) 정권에 들어 건립하여, 각자 말씀하신 사정과는 다릅니다. 거기에다 사전에 말씀하셨으면 에도(江戸)의 로쥬(老中)들에게도 물어봐서 어떻게라도 됐을 텐데, 이미 연회준비도 있는데, 지금에 이르러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³⁶⁾와 같이 이야기한다. 사전에 에도에서 다이부쓰지 방문을 거절하는 사유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아무리 전례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했을 텐데 이미 연회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를 철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쓰시마 입장에서는 전례를 어기는 것보다는 막부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에 명확히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가노카미는 다

34) 信使記録51 『信使京都本能寺晝休と被仰出候處往還共止宿被仕候次第并大佛二立寄間敷旨三使被及異難候付被仰諭候上立寄見物被仕候覺書』 11월 1일, 委細御返答之趣, 奉畏候。三使ニ申達, 承引無之候ハ、又々御案内可申哉, 又ハ直ニ発足も可仕候哉

35) 쓰시마가 大佛寺에 신사와 동행하여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은, 箕輪吉次, 「壬戌年信使記録의 集書」, 『한일관계사연구』 50, pp.123~174, 2015에 자세하다.

36) 信使記録51, 11월 1일, 大仏之義ハ、御当家之御建立候而、各被仰間候訳与ハ違申候。夫共ニ前広ニ被仰間候者、江戸表御老中様へも相伺候而、如何様共可相済候得共、最早御設も在之候處、昨今ニ至、被仰間候段、各了簡違与存候。

른 입장을 내세운다. 이가노카미는 “구상서를 보았는데, 조선인들이 에도에서 말하지 않고 전날 밤에 이르러 거절을 한 것을, 에도에 말하더라도 무례하게 들릴 것이니 (중략) 조금 늦어도 다이부쓰에 들른다면 에도에 보고하지 않고 끝날 것이니...”³⁷⁾와 같은 것으로 다이부쓰에서 열리는 연회에 대한 입장차가 분명하다. 쓰시마는 강정에서 정한 연회라고 하더라도 잘 이야기하면 거절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이야기하나, 이가노카미는 거를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연회를 거절한 행위 자체가 막부의 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곧 다이부쓰지 방문이라는 전례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이부쓰지 방문을 둘러싼 논쟁은 몇 차례 교섭 끝에 극적으로 종사관을 제외한 정사와 부사들만 방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³⁸⁾ 이 사건은 다이부쓰지에 통신사를 인도하는 것에 대한 쓰시마의 부담과, 통신사행에 있어서 전례에 대한 쓰시마의 입장이 잘 드러나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충된 성격이 부딪히는 모습은 다른 곳에서도 드러난다. 본문에서 설명한 후츄에서 예법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을 때, “제술관이 병

37) 信使記録110 『下向信使奉行京大阪在留中毎日記』 11월 1일, 御口上書遂披見候処, 朝鮮人江戸ニ而不申出, 前夜ニ至リ, 御断被申候段, 関東へ相聞候而茂, 不礼ニモ可相聞候付, 假一夜など逗留之分ハ不苦事ニ候. (중략) 少々延引仕候而も, 大仏江被立寄候得者, 江戸江無御案内, 相濟候間,

38) 『海槎日録』의 11월 2일자 기록(pp.203~204)에는 “식후에 재판이 한 책자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후략)”과 같이 되어 있고, 『海游録』에도 “자기의 집에 간직 하였던 日本年代記 印本 한 책을 내어 주며 사신에게 전해 보이게 하였다.”와 같이 伊賀守가 보낸 서적을 보고 三使가 납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信使記録51, 11월 2일자 기록에 “大仏之儀ハ秀吉, 秀頼旦那上与承候. 秀吉ハ朝鮮国之大敵にて御座候処, 其人建立之寺へ立寄可申様無之義ニ御座候付, 昨今ニ至段々御断申候得共, 左様ニ而無之, 秀吉建立之大仏ハ回禄いたし, 其以後御当家ニ至リ御造營候段, 委細ニ被仰聞, 其上, 右之訳, 書記有之, 書籍を御見せ被成ル上ハ相違之義有之間敷候得共, 言葉ニて承候而ハ証拠ニモ難成義ニ候.”와 같이, 통신사 측에서 먼저 책자를 요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양측의 기록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에 걸린 것으로 말하고 나오지 않게 하면 되지 않느냐”와 같이 말하며 막부의 체면과 통신사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거짓말을 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 또한 그런 예를 잘 설명하고 있다. 또 하나로 통신사가 사스나에 도착한 다음날인 6월 21일에 쓰시마 측에서 향응을 준비하는데, 종사가 사정을 이야기하며 거절하니, “거절하시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리를 준비하여 내기만 하면 되니, 앉아 주십시오. (중략) 설령 받지 않으시더라도 자리에 앉으시면 일하는 인원(役人)들도 대단히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³⁹⁾와 같은 것으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좋으니 아만 있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들은 체면과,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의무가 충돌하여 빚어낸 사건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조선 후기 12차례에 걸쳐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는 일본에 도해(渡海)하기 전에 강정을 통해 세세한 부분을 해결해 두었다. 그러나 사소한 일까지 강정으로 정할 수는 없는 법이었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 관해서는 이전의 통신사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통해 일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통신사가 매년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었기에 이를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저장매체가 발달한 것도 아니기에 필연적으로 기록의 누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발생하는 상황을, 본문에서는 ‘전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전례를 지킬 수 없는 경우’, 혹은 ‘전례를 일방적으로 한 쪽에

39) 信使記録10, 6월 21일, 御斷之段御尤存候。乍然, 御料理仕立, 差出候迄ニ用意仕候間, 御据り被成被下候様ニ (중략) 假令不被給候共, 御据被成候ハ、役人中も大慶可被存候

서 거절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쓰시마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쓰시마가 통신사행을 수행할 때, 전례를 지키지 못하거나 전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다. 이 기록을 늘 소지하고 다녔던 것인지, 필요에 따라 바로 기록을 꺼내 확인시켜 주는 장면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전례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전에 통신사행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확인하거나, 이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황에 맞춰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례를 알면서도 이를 변경하거나,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통신사의 호행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원활한 통신사행의 수행을 위해 안전에 관한 문제 등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전례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후에 다른 신례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기록에 남기길 요구하는 모습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도주와의 예법 문제와 다이부쓰지의 방문 문제 등, 기해사행에서는 여타 사행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통신사가 전례를 부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쓰시마가 이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쓰시마와 막부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권위와 체면을 지키면서도 지체 없는 원활한 통신사행을 위해 모순된 행동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꺾병을 핑계 삼게 하거나, 음식을 먹지는 않아도 자리에만 앉도록 요구하거나 하는 것들은 체면을 유지하며 통신사행을 원활히 수행하려고 하는 것들로, 쓰시마가 전례를 지킴에 있어 가장 중요시했던 두 개념이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모순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9년 5월 15일

논문 심사일 : 2019년 6월 9일

게재 확정일 : 2019년 6월 24일

참고문헌

〈사료〉

- 信使記録番外, 『御參向信使奉行對府在留中毎日記』.
信使記録十, 『國書并迎杉村采三郎左衛門佐須奈迄被差越覺書』.
信使記録五十一, 『信使京都本能寺晝休と被仰出候處往還共止宿被仕候次第并大佛二立寄間敷旨三使被及異難候付被仰諭候上立寄見物被仕候覺書』.
信使記録九十九, 『參向信使奉行船中毎日記』.
信使記録百四, 『參向信使奉行道中毎日記』.
信使記録百十, 『下向信使奉行京大阪在留中毎日記』.
信使記録百十四, 『下向對府在留中信使奉行毎日記』.
信使記録百廿二, 『下向信使奉行船中毎日記』.
(상기의 마이크로필름을 활용한 宗家文書는 모두 慶應義塾圖書館 소장, 단 각주에서는 内題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다)
洪致中, 허경진 역, 『海槎日錄』(통신사 사행록 번역총서 12), 보고사, 2018.
申維翰, 『海游錄』(한국고전DB <http://db.itkc.or.kr/> 참조일 2019.05.10).

〈논문〉

- 이재훈, 「대마도 종가문서(對馬島宗家文書) 일기도(壹岐島)에서의 기록-기해사행(己亥使行)의 기록을 『해유록(海游錄)』과 비교하며-」, 『일어일문학연구』 68-2, 2009.
이재훈, 「己亥使行의 嚴原에서의 예법논쟁-『海游錄』과 종가문서를 비교하여」, 『日語日文學研究』 71-2, 한국일어일문학회, 2009.
이재훈, 「己亥使行과 호코지」, 『일어일문학연구』 84-02, 한국일어일문학회, 2013.
장순순, 「조선시대 對馬島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41, 2013.
정응수, 「아라이 하쿠세키의 朝鮮通信使 의례 개정에 관하여」, 『일본문화학보』 24, 한국일본문화학회, 2005.
箕輪吉次, 「壬戌年 信使記録의 集書」, 『한일관계사연구』 50, 2015.

Abstract

The Precedent of the 9th Tongsinsa in 1719 – Based on the Records of Tsusima Soke –

Jae-hoon Lee

In this study, we wanted to find out how Tsuima responded to the failure of precedent or unclear precedent by the records of Tsusima Soke (1719). The purpose of the Tongsinsa was already diplomatic, so they could not arbitrarily change format or change course. Therefore, before the Tongsinsa is done, the details must be solved through Kangjung(講定). It is usually based on how it has been done in the previous Tongsinsa. However, unexpected variables may occur. Such as when the Kangjung do not convey information accurately, the precedent is not clearly recorded, or inevitably cannot be kept as the weather or place changes, and when the precedent is unilaterally rejected by one side.

When Tsusima was carrying out its mission, it mostly checked old records if it failed to keep the precedent or was not aware of the precedent. If there was no precedent, they would check with someone who had done Tongsinsa or make a judgment based on the circumstances.

Most of them seemed to respond to two criteria when they failed to keep the precedent. One was for safe and smooth passage, such as a change in precedent following bad weather, and the other was for the protection of authority and face of Bakuhu or Tsusima, as is related to etiquette or treatment. Particularly, such as etiquette has been the point where both sides

cannot easily make concessions,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op and the bottom seems to be determined. That is why we could also find the tightness of demanding that even minor things be kept on record so as not to be pre-examined later. The fact that they made people pretend to be sick or ask them to maintain sitting on their seats even though they didn't eat food can be seen as a situation created by the collision of two sides that are trying to keep up appearances and carry out the mission smoothly.

Key words

The 9th Tongshinsa in 1719, The records written by Bugyo, precedent,
The records of Tsusima Soke